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산업 수요 측면에서 본 고용 상황과 시사점

# 목 차

## ■ 산업 수요 측면에서 본 고용 상황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산업 수요 측면에서 본 고용 상황 .....	3
3. 시사점 .....	8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관       :   한 상 완 연구총괄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경제연구본부       :   조 호 정 연구위원 (2072-6217, chjss@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산업 수요 측면에서 본 고용 상황과 시사점

#### ■ 개요

최근 불황이 장기화되며 기업들의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수요는 위축되고 있고 전반적인 고용 상황도 부진한 모습이다. 이에 최근 경기 불황이 산업별 고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 산업 수요 측면에서 본 고용 상황

산업 수요 측면의 고용 상황(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 수요를 보여주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14년 이후 분기별 자료를 활용)은 **첫째, 산업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다.** 국내 사업체(비농 전산업)의 종사자는 '14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16.7만명 증가했지만 이후 감소세가 지속됐고 '15년 1분기는 약 2.7만명 증가에 그쳤다. **둘째, 서비스업 고용은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은 감소하였다.** 서비스업체의 종사자는 '15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약 7.3만명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체의 종사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약 4.5만명 줄었다. **셋째, 주력 제조업의 중소기업 종사자 감소폭이 컸다.** 국내 제조업체 종사자는 '14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2.9만명 증가했지만 '15년 1분기는 약 1.1만명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주력 제조업 중 섬유·의복, 조선, 전기장비 업종의 종사자 수가 약 2.2만명 감소했다. **넷째, 건설업의 고용 감소가 심각하다.** 최근 건설업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종사자는 '15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약 3.4만명 감소했다. **다섯째, 서비스 업종 내 고용 온도차도 컸다.** 서비스업체의 종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숙박·음식업, 사업서비스업 외, 도소매업 등의 종사자는 '15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약 1.6만명 감소해 업종 간 차이를 보였다.

#### ■ 시사점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 확대와 산업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산업의 고용 수요 확대를 가로막는 경직적 노동시장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둘째, 기업의 신규투자 유도, 정부의 고용지원금 확대 등 산업별 차별화된 고용지원 전략도 필요하다. 셋째, 중소 사업체의 FTA 활용도 제고, 고용 지원 등으로 고용 감소를 방어해야 한다. 넷째, 고부가가치 및 고기술화에 투자를 집중으로 새로운 주력 산업과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 다섯째, 경기 불황 지속에 따른 실직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 국내 사업체의 종사자 수와 증감 추이 >    < 산업/사업체규모별 종사자 수 증감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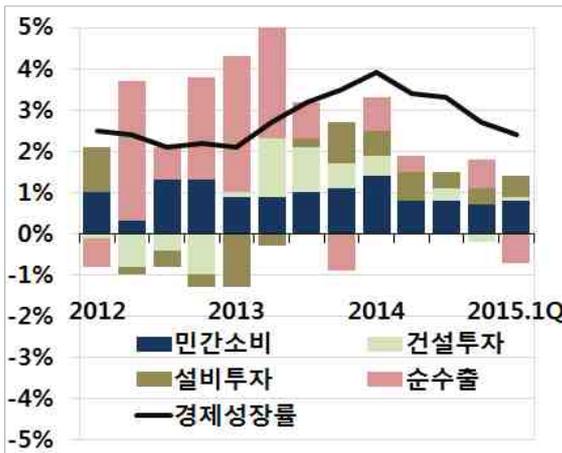
산업	사업체 규모별	'14년 1Q 대비 '15년 1Q
제조업	전체	-10,858
	중소기업	-11,027
	대기업	168
건설업	전체	-34,156
	중소기업	-32,492
	대기업	-1,664
서비스업	전체	72,650
	중소기업	56,922
	대기업	15,728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1. 개요

- 최근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 최근 경제성장률의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5년 성장률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음
    -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14년 1분기 3.9%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5년 1분기에 2.4%로 낮아짐
    - 또한, IMF가 최근 수정전망을 통해 한국의 2015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4.0%에서 두차례에 걸쳐 3.3%로 하향 조정
  -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업황 불확실성은 커진 반면, 고용은 상대적으로 덜 나쁘다고 느끼면서 업황과 인력 사정 간 격차가 확대
    - 국내 기업들의 업황 지수는 '12년 하반기 이후 소폭 상승세를 보였지만 '14년 하반기 이후 재차 하락세로 돌아서 '15년 3월 71(기준선 100)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
    - 기업들의 인력사정은 '15년 3월 91로 현재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업황보다 덜 나쁘다고 느끼고 있어 고용 증가로 이어지기는 힘든 상황임

<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 기업경기실사 지수(실적 기준)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고 100 미만인 경우 경기가 안 좋다고 판단.

○ 산업 생산 증감률이 감소·정체되며 산업 현장에서 수요가 위축되고 있고 경기 후행지표인 고용 상황도 악화되고 있음

- 국내 산업은 내수 부진 지속,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 등으로 생산 증감률이 정체

· 제조업의 생산 증감률이 '14년 4/4분기 2.4%에서 '15년 1/4분기 0.7%로 급감했고 건설업은 -1.0%에서 0.7% 소폭 상승, 서비스업은 '14년 4/4분기 이후 3.1%를 기록

· 특히, 조선, ICT 등 주력 산업의 생산은 '13년 1/4분기 이후 정체된 가운데 '14년 하반기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급격히 악화. 더불어 환율 전쟁 등으로 수출도 '15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2.8%를 기록하며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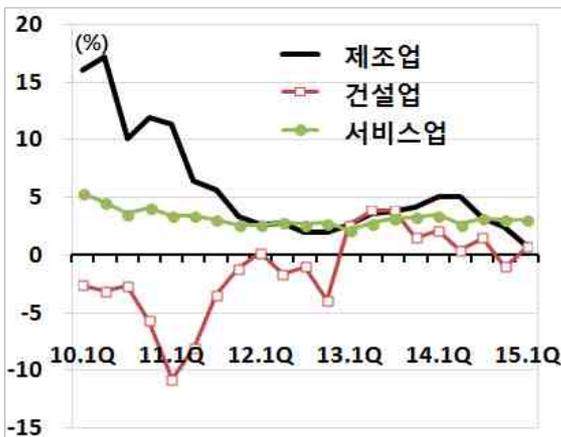
- 기업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14년 하반기부터 신규 취업자 수가 급감하고 실업률은 상승하는 등 고용 사정도 악화

· 신규 취업자가 '14년 전년대비 53.3만명으로 '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15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5.4만명 수준으로 하락

· 실업률은 '13년 3.1%에서 '14년 3.5%로 높아졌고 '15년 1/4분기에는 4.1%를 기록

○ 이에 최근 경기 불황이 산업별 고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 산업별 생산 증감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신규 취업자 및 실업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신규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임.

## 2. 산업 수요 측면에서 본 고용 상황

○ (산업의 고용창출력 약화) 국내 사업체의 종사자 증가폭이 '14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면서 고용 창출력이 약화

- 국내 기업들의 노동 수요를 보여주는 사업체노동력 조사는 산업 수요 측면에서 실제 고용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전체 취업자는 약 2,560만명으로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전체 종사자 약 1,500만 명과는 차이가 큼.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조사대상 1주일 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취업자로 구분하지만 사업체노동력 조사는 사업장이 있는 사업체<sup>1)</sup>에 고용된 근로자만을 종사자로 보기 때문임
- 사업체노동력 조사에서는 농림어업 종사자, 고정 사업장 없이 고용된 근로자(노점상, 행사 등),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및 장기 휴업 중인 사업체 종사자 등은 제외됨

- 국내 사업체들의 종사자 증가폭은 '14년 이후 전년동기대비 꾸준히 하락

- 국내 사업체의 총 종사자(종사자 1인 이상 비농업 전산업 기준,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 등은 제외)는 '15년 1분기 기준 1,508만명임
- 국내 사업체의 종사자는 '14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약 16.7만명 증가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5년 1분기에는 약 2.7만명 증가하는데 그쳤음

< 사업체와 가구 고용 조사 비교 > < 국내 사업체의 종사자 수와 증감 추이 >

	사업체노동력 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목적	- 노동수요(기업) 측의 고용동향	- 국민들의 경제활동 특성 조사
조사단위	- 사업체	- 가구원
조사대상	- 비농 전산업 - 종사자 1인 이상	- 개인
조사기준	- 매월 마지막 영업일	- 15일이 포함된 1주간
고용	- 사업체 종사자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등은 제외	- 취업자 : 1주일 간 1시간 이상 일한 자

자료 : 통계청 각 조사별 개요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 활용).  
주 :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로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등은 제외.

1) 영리비영리 또는 적법위업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

○ (전산업: 서비스업 고용은 증가, 제조업 및 건설업은 감소) 서비스업 고용은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15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약 4.5만명 감소

- 국내 중소기업의 종사자 증가폭이 '14년 이후 크게 감소

- 기업규모별 종사자는 '15년 1분기 300인 이상 대기업이 218만명, 중소기업은 1,290만명임
- 기업규모별 종사자는 대기업이 '14년 내내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15년 1분기는 약 1.5만명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14년 이후 종사자 증가폭이 꾸준히 감소하여 '15년 1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약 1.2만명 증가에 그쳤음

-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체의 종사자는 '15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약 7.3만명 증가했지만 제조업 및 건설업체의 종사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약 4.5만명 감소

- 서비스업체 종사자는 꾸준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15년 1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약 7.3만명 증가
- 반면, 제조업체의 '15년 1분기 종사자는 전년동기대비 약 1.1만명 감소했는데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대부분 줄어들었음
- 건설업체 종사자도 '15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약 3.4만명이 감소함. 기업규모별로는 중소 건설업체의 종사자가 약 3.2만명, 대기업도 약 1.7천명 감소

< 기업규모별 종사자 수와 증감 추이 > < 산업/사업체규모별 종사자 수 증감 >  
(단위: 명)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 활용).  
주 : 1)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로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등은 제외.  
2) 전년동기대비 증감임.

산업	사업체 규모별	'14년 1Q 대비 '15년 1Q
제조업	전 체	-10,858
	중소기업	-11,027
	대기업	168
건설업	전 체	-34,156
	중소기업	-32,492
	대기업	-1,664
서비스업	전 체	72,650
	중소기업	56,922
	대기업	15,728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 활용).  
주 : 중소기업은 종사자 300인 이하, 대기업은 300인 이상임.

○ (제조업: 주력 제조업 고용 감소폭 확대) 제조업체의 고용이 마이너스대로 하락한 가운데 주력 제조업의 종사자가 '15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22만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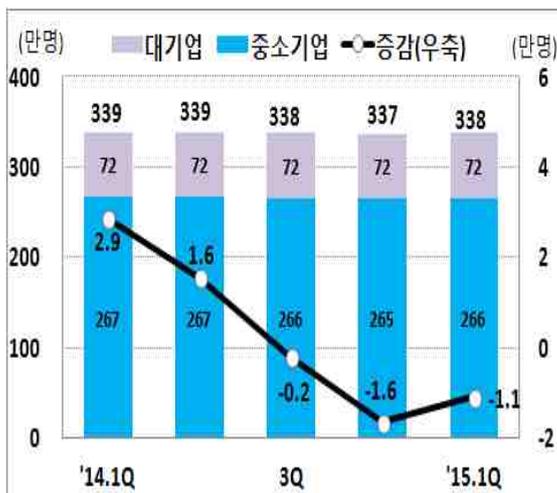
- 제조업체의 종사자가 축소되는 있으며 '15년 1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약 1.1만명 마이너스를 기록

- 국내 제조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수는 '15년 1분기 기준 338만명임
- 제조업체의 전년동기대비 종사자 수는 '14년 1분기 2.9만명 늘어났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고 '15년 1분기에는 1.1만명 마이너스를 기록
-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종사자는 약 72만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15년 1분기 266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1.1만명 감소

- 특히 주력 제조업종 중 섬유·의복, 조선, 전기장비 업종 등의 업황 사정이 악화되면서 종사자 수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2.2만명 감소

- 주력 제조업 중 섬유·의복 업체의 종사자가 '15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약 9.3천명 감소했고 조선업체도 약 7천명, 전기장비 4.8천명, ICT업체에서도 2.5천명이 감소
- 한편, 대부분 중소기업의 종사자가 줄었는데 전기장비, 철강, 조선업 등은 대기업에서도 약 1.9천명이 감소하였음

< 제조업체의 종사자 수와 증감 추이 > < 주력 제조업종별 종사자 수 증감 >  
(단위: 명)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산업체노동력조사 자료 활용).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감임.

	'14년 1Q 대비 '15년 1Q		
	중소기업	대기업	합계
자동차	-940	1,856	-2,797
조선	-7,282	-516	-6,767
철강	86	-416	503
ICT	-2,454	1,080	-3,534
화학	1,800	95	1,704
섬유·의복	-9,297	483	-9,782
전기장비	-4,812	-888	-3,925
의료정밀화학	1,108	-42	1,150
합계	-21,791	1,652	-23,448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산업체노동력조사 자료 활용).  
주 : ICT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 제조업이며 업종분류 한계로 철강은 1차 금속 제조업, 조선은 기타운송장비제조업임.

○ (건설업: 고용 감소 심각) 최근 건설업 경기 회복 기조에도 불구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종사자가 '15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약 3.4만명 감소

- 건설업 경기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건설업체의 종사자 증가폭은 '14년 2분기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15년 1분기는 전년동기대비 약 3.4만명 감소

- 국내 건설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수는 '15년 1분기 기준 약 98만 명임
- 최근 건설 경기 회복 기조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종사자 증가는 '14년 1~2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4.5만명, 5.3만명 증가했지만 '15년 1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4만명 감소하여 주요 산업 중 종사자 감소폭이 가장 컸음
- 건설업체의 종사자 감소는 300인 이하 중소 건설업체의 고용 악화에 기인함

- 최근 중소 건설업체의 종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대기업에서도 약 1.7천명 이상 줄어듦

- 건설 업종별로는 종합 건설업체에의 종사자가 '15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1.6만명 줄었는데 300인 이하 중소 종합 건설업체에서 대부분인 약 1.4만명이 줄었고 대기업 종사자는 약 1.4천명 감소함
- 또한 전문직별 공사업체(미장공, 목공, 도장업 등)의 종사자도 '15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약 1.8만명 줄었는데 중소기업에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건설업체의 종사자 수와 증감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 활용).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감임.

< 건설 업종별 종사자 수 증감 >

(단위: 명)

산업	사업체 규모별	'14년 1Q 대비 '15년 1Q
종합 건설업	전 체	-15,696
	중소기업	-14,270
	대기업	-1,427
전문직별 공사업	전 체	-18,461
	중소기업	-18,223
	대기업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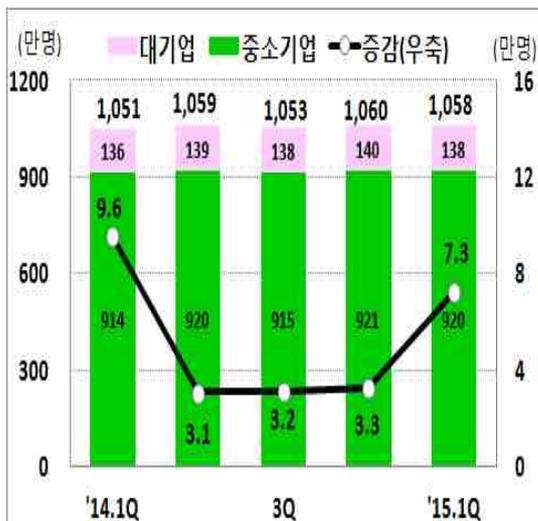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 활용).  
주 : 종합건설업은 건축 토목 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은 미장공, 목공, 도장공 사업임.

○ (서비스업: 업종 내 고용 온도차) 서비스업체의 종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숙박·음식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외, 도소매업은 '15년 1분기 전년 동기대비 약 1.6만명 감소하여 업종 내 고용 온도차가 큼

- 서비스업체의 종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국내 서비스업체의 종사자는 '15년 1분기 기준 1,058만명임
  - 서비스업체의 종사자는 '14년 이후 전년동기대비 꾸준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15년 1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7.3만명 증가하며 증가폭이 재차 확대
  - 한편, 기업규모별로는 중소 서비스업체의 종사자 수가 '15년 1분기 약 920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5.7만명 증가했고 대기업도 138만명으로 약 1.6만명 증가

- 주요 서비스업종 중에서는 숙박·음식업, 사업서비스업 외, 도소매업의 종사자가 '15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약 1.6만명 감소
  -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업의 종사자가 '15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약 1.1만명 줄었고 사업지원서비스업 외 약 2.8천명, 도소매업도 1.5천명 감소
  - 기업규모별로는 중소 사업지원서비스업체, 숙박·음식업체 및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종의 종사자가 감소했고, 교육서비스업은 대기업 종사자가 줄었음

< 서비스업체의 종사자 수 및 증감 추이 > < 주요 서비스업종별 종사자 수 증감 > (단위: 명)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활용).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감임.

	'14년 1Q 대비 '15년 1Q	
	중소기업	대기업
도소매업	-1,472	248
숙박·음식업	-11,323	-323
금융·보험업	19,879	43
사업지원서비스업 외	-2,788	3,22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2,992	4,235
교육서비스업	19,123	-1,36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1,458	4,962
합계	37,869	11,024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활용).

### 3. 시사점

-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산업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었고 주력 산업에서는 고용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음
  - 내외수 동반 부진으로 국내 기업들의 생산이 정체되고 업황 불확실성도 확대되면서 제조업, 건설업에서 고용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음
    - 주력 제조업 중에서는 섬유·의복, 조선업, 전기장비 업종의 기업들에서 고용이 감소했으며 ICT, 자동차 등의 기업규모에 따라서도 고용 감소가 목격됨. 특히 주력 제조업의 중소기업 고용 감소폭은 전체 제조업 보다 컸음
    - 주요 서비스업종에서도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인해 '15년 들어 숙박·음식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외, 도소매업 등에서 고용이 감소
    - 또한, 전체 건설업체의 고용도 '15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약 3.4만명이 감소하여 주요 산업 중 고용 감소폭이 가장 컸음
- 국내 주력 산업은 지속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매우 중요한 만큼 이들 산업들이 현재의 불황 국면을 타개하고 고용 창출력 확대,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용시장 제도 개선, 산업별 특화된 고용 지원 및 실직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등이 요구됨

첫째, 산업의 고용 수요 확대를 가로막는 경직적 노동시장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 과도한 근로자 보호법으로 인식되는 최저임금제, 정규·비정규직 보호법 및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은 노동시장 수급의 원리에 맞게 개편이 필요함
- 독일은 기간제·파견·해고 요건의 완화까지 포함한 과감한 고용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확대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sup>2)</sup>
  - 독일은 단체협약을 통해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근로기간과 임금을 조정할 수 있

2)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독일 고용률 73% 달성의 비결' '13년 7월 참고.

도록 했고, 기업 해고보호대상도 기존 5인에서 10인으로 확대 하는 등 고용 개혁(일명, 하르츠 개혁)을 통해 고용 시장 유연성을 꾸준히 제고

둘째, 기업의 신규 투자 유도, 정부의 고용지원금 확대, 자영업 구조조정 등 산업별로 차별화된 고용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 고용이 감소한 산업별로 국내외 비즈니스 환경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산업별로 차별화된 고용지원 전략이 필요
  - 조선, ICT 등 수출 환경이 악화된 산업들은 신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고 섬유·의복, 전기장비 등은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
  - 또한, 국내 10대 그룹의 '14년 기준 500조에 달하는 사내 유보금이 신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 등도 강화할 필요도 있음
  - 반면, 자영업의 비중이 높고 폐업도 빈번한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은 창업 이후 지속적인 컨설팅 제공, 은행 대출 접근성 확대 등을 지원

셋째,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FTA활용 제고, 특성화된 고용 지원책 등으로 고용 감소를 방어해 나가야 한다.

- 국내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
  - 한국은 미국, 유럽을 비롯하여 중국, 아시아, 중남미 국가들까지 경제 영토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률은 '15년 1월 59.1%로 대기업의 80.2% 보다 크게 낮은 상황임
- 아울러, 중소기업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서 고용 부문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넷째, 고부가가치화 및 고기술화에 대한 투자 집중을 통해 새로운 주력 산업과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야 한다.

- 고부가가치화 등에 대한 투자 집중을 통해 새로운 주력 산업을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력도 제고
  - 국내 주력 산업이라 할지라도 저부가·저기술에 집중했다면 투자와 자원을 고부가·고기술 부문으로 전환하여 육성해야 할 것임
  - 특히, 기존 전통 산업일지라도 새로운 유통방식, ICT 융합 기술 등을 통해 새롭게 주력 산업화 할 수 있는 부문을 꾸준히 발굴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확대해 나가야 함
- 한편, 국내 소비시장에서도 디자인, 혁신 제품 개발 등에 대한 주력하여 산업 간 연계된 일자리를 확대
  - 우리 제품의 내수시장에서의 고전은 시장의 구매력과 트렌드 변화를 감지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에 원인이 있음
  - 따라서, 기존 시장을 선도할 수 있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 및 디자인 가치 제고 등으로 직업 스펙트럼을 확대해 나가야 함

다섯째, 경기 불황 지속으로 발생하는 실직자들에게는 일자리 매칭 강화, 재교육 프로그램 유도 등으로 고용 시장에 재진입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국내 주력 산업에서 실직한 인력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해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문 재교육 프로그램 등도 다양하게 제공
  - 국내 주력 산업에서 숙련도를 높였지만 실직한 인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업무 중심으로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일자리매칭을 강화
  - 또한, 기존 업무의 숙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거나 IT 교육 등을 접목한 전문화된 재교육 프로그램 등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산업연구실 조호정 연구위원 (02-2072-6217, chjss@hri.co.kr)

<별첨> 산업별 비자발적 이직자, 근로시간, 임금 변화 추이

○ (비자발적 이직자) 기업의 업황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비자발적 이직자가 재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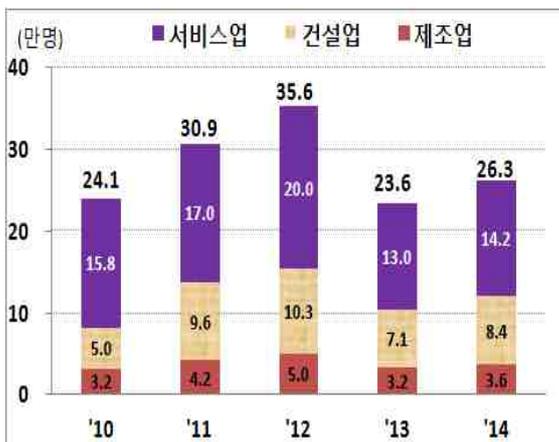
- 국내 사업체의 비자발적 이직자는 '14년 전년대비 약 2.7만명 증가

- 전체 비자발적 이직자(고용계약종료, 구조조정, 합병·해고 등에 따른 면직 등)는 '12년 35.6만명에서 '13년 23.6만명으로 줄었으나 '14년 26.3만명으로 재차 증가됨
- 산업별로는 제조업체의 비자발적 이직자가 2014년 3.6만명으로 전년대비 4천명 증가했고 서비스업과 건설업도 각각 14.2만명, 8.4만명으로 전년대비 1.2만명, 1.3만명 늘어남

- 제조업 중에서는 섬유·의복, 서비스업은 숙박·음식업에서 비자발적 이직자가 가장 많았음

- 2014년 기준, 제조업체의 비자발적 이직자 3.6만명 중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체에서 약 1.4만명이 정리해고 등으로 이직하였음. 특히, 섬유·의복, ICT, 전기장비 및 조선업체에서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았음
- 주요 서비스업의 비자발적 이직자는 2014년 기준 약 10.2만명임. 내수부진 등으로 종사자 감소폭이 큰 숙박·음식업의 비자발적 이직자가 약 2.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도 각각 2만명에 달하였음

< 산업별 비자발적 이직자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 활용).  
주 : 연간 기준임.

< 주요 업종별 비자발적 이직자 수 (2014년 연간 기준, 명) >

제조업		서비스업	
업종	이직자 수	업종	이직자 수
자동차	1,801	도소매	19,802
조선	2,250	숙박·음식	20,942
철강	1,060	금융·보험	3,586
ICT	2,730	사업지원서비스 외	17,427
화학	804	전문과학기술서비스	6,966
섬유·의복	2,985	교육서비스	19,236
전기장비	2,743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4,919
<b>합계</b>	<b>14,373</b>	<b>합계</b>	<b>102,878</b>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 활용).  
주 : ICT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 제조업이며 업종분류 한계로 철강은 1차금속 제조업, 조선은 기타운송장비제조업임.

○ (근로시간) 업황이 부진한 산업은 근로시간도 대체로 평균보다 더 감소

- 전국 사업체(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2010년 이후 지난 4년간 6시간 감소
  - 전산업 사업체의 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10년말 177시간에서 '11년 6월 주 5일 근무제가 5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 등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14년말 171시간으로 약 6시간 감소
  -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근로시간이 '10년말 192시간에서 '14년말 185시간으로 7시간, 서비스업도 동기간 4시간 감소. 반면, 건설업은 '10년 146시간에서 '14년 149시간으로 소폭 증가
- 철강, 사업서비스업 외 등 업황이 부진한 산업의 근로시간이 더 많이 줄었는데 숙박·음식업은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은 크게 증가
  - 제조업체의 근로시간은 '10년 1월 대비 '15년 1월 약 6.7시간 줄었는데 철강, 전기장비와 섬유·의복 등 고용이 감소한 업종은 근로시간이 평균보다 더 감소
  - 서비스업체의 근로시간도 평균 4시간 줄었는데 숙박·음식업은 '10년 대비 '14년 11.5시간 늘어나 근로환경이 더욱 열악해 진 것으로 판단됨

< 산업별 월 평균 근로시간 변화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 활용).  
주 : 연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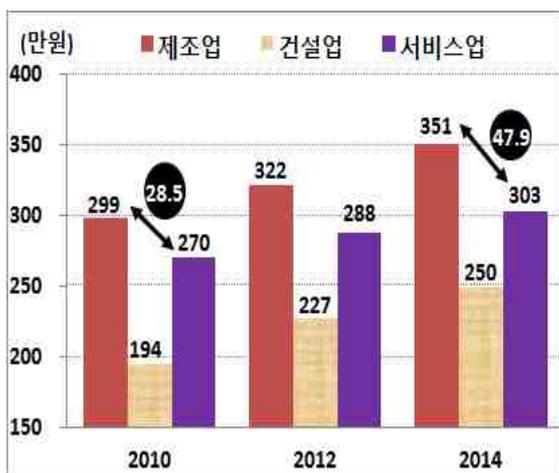
< 주요 업종별 근로시간 변화('10년 대비 '14년 연간 기준, 시간) >

제조업		서비스업	
업종	단축 시간	업종	단축 시간
자동차	-4.7	도소매	-4.9
조선	-3.7	숙박·음식	11.5
철강	-10.5	금융·보험	-1.9
ICT	-5.0	사업지원서비스 외	-8.2
화학	-1.2	전문과학기술서비스	-3.0
섬유·의복	-7.2	교육서비스	2.1
전기장비	-7.7	보건사회복지서비스	-6.9
<b>전체평균</b>	<b>-6.7</b>	<b>전체평균</b>	<b>-4.0</b>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 활용).  
주 : ICT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 제조업이며 업종분류 한계로 철강은 1차금속 제조업, 조선은 기타운송장비제조업임.

- (임금)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된 가운데 주력 제조업 중 고용이 감소한 조선, 섬유·의복 등은 임금 상승폭도 낮았음
  - 제조업 종사자의 임금은 서비스업 종사자보다 상대적으로 높는데 그 격차가 '10년 28.5만원에서 '14년 47.9만원으로 확대
    - 산업별 월 평균 임금은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순으로 높는데 제조업 종사자의 상용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근로시간도 가장 길기 때문으로 판단됨
    - 한편,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임금 격차는 '10년 28.5만원에서 '14년 47.9만원으로 확대되어 서비스업 종사자의 근로 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해졌음
  - 주력 제조업 중 고용이 감소한 조선, 자동차, 섬유·의복은 임금 상승폭도 낮았음
    - 주력 제조업 중 ICT가 '10년 대비 월 평균 임금이 103만원 증가했고 화학 82만원, 철강과 전기장비 57만원 순으로 증가했음
    - 반면, 조선, 섬유·의복 등 고용이 감소한 업종은 임금 상승폭도 전체 제조업 평균보다 낮았음. 단, 조선, 자동차는 월 총 급여액이 가장 높은 편임
    - 주요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보험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임금이 높은데 '10년 대비 임금 상승폭도 가장 컸음. 한편, 사업서비스업 외,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임금 상승폭은 평균보다 낮았음

< 산업별 임금 추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 활용).  
주 : 월 평균 임금 기준.

< 주요 업종별 월 평균 임금 증감 ( '10년 대비 '14년 연간 기준, 만원)>

제조업		서비스업	
업종	임금 증감	업종	임금 증감
자동차	30	도소매	44
조선	25	숙박·음식	32
철강	57	금융·보험	55
ICT	103	사업지원서비스외	8
화학	82	전문과학기술서비스	46
섬유·의복	39	교육서비스	22
전기장비	57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1
<b>전체평균</b>	<b>52</b>	<b>전체평균</b>	<b>33</b>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 활용).  
주 : ICT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 제조업이며 업종분류 한계로 조선은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대체함.